
민중사건과 언어사건

1. 성서에서 본 말의 성격

1) 그 말의 현장은 어떤 것이었나

예레미야는 이미 아모스나 호세아 등이 예언, 즉 말의 활동을 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음으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완전히 망해버린 다음, 분단된 나라의 반쪽인 유다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똑 같은 전철을 밟게 될 위기 속에 있었는데 바로 그런 상황이 그가 말을 해야 하는 현장이었다. 어린 예레미야는 감복송아지의 환상을 보았다(예레 1, 11~12). 그는 이것을 하느님이 그에게 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것이라는 계시로 받아들였다. 다음에 그는 부글부글 끓는 솥 물이 북쪽에서 쏟아져내리려 하는 환상을 보았다(예레 1, 13). 그는 이것을 북의 세력이 유다왕국의 운명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것은 바로 신흥제국인 바빌론의 침공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말해야 하는 현장은 한정된 어떤 종교적인 영역이 아니라 민족 전체가 당해야 할 사건이 전개될 현장이었다.

이것은 예레미야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다. 예언활동이란 이스라엘에 군주체제가 이루어진 후부터 시작된 것이다. 다윗왕조 이래로 군주들의 횡포와 그 밑에서 일어나는 온갖 비리, 마침내 민족의 반영구적인 남북분단, 그리고 갈라진 두 쪽이 하나씩 망해가는 와중에서 예언자들의 말의 현장은 성전이나 교회와 같이 한정된 성역 같은 곳이 아니라 역사의 한복판이었다.

2) 예수의 경우

예수의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제국의 압제 밑에 있으며 헤로데왕가가 로마의 꼭두각시로 민(民)에 대한 횡포를 자행하고 있을 때였다. 그런데 예수가 말을 외치기 시작한 현장은 마르코 1장 14절에서 다음과 같은 간단한 말로 성격화된다. 즉 “세례자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듣고 예수는 갈릴래아로 갔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가 말하기로 한 현장은 세례자 요한이 불법으로 체포된 시점에, 바로 그 헤로데 안티파스가 통치하는 갈릴래아였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분명히 정치적인 폭력이 난무하는 그곳이 바로 예수가 말씀울 선포할 현장이었다는 뜻이며, 예수는 바로 그런 지역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로마와 유다 종교지도자들의 야합으로 인해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처형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3) 예수사건에 관한 전승

사도행전에 의하면 예수사건을 말함과 더불어 박해가 일어났다. “너희들이 잡아죽인 예수를 하느님이 살리셨다”는 증언과 더불어 베드로가 투옥되고, 스데파노가 돌에 맞아 순교당하는 등의 박해가